

개교 60주년 기념 도서전시회

류 운 주
(정보관리과)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도서전시회 세부진행사항 |
| 2. 전시개요 | 4. 전시구성 |
| 2-1. 전시회명 | - 13개 테마별 설명 및 사진자료 |
| 2-2. 전시일시 | 5. 맺음말 |
| 2-3. 전시장소 | |
| 2-4. 전시취지 | |

1. 머리말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2006년에 개교60주년을 맞이하였다.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서울대학교 환갑을 기념하기 위해 암울했던 과거와 격동의 세월을 보내는 현재, 미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서울대학교 개교60주년기념 도서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보·보물, 희귀본, 일제강점기자료, 시대별 판금도서 등 13개 테마로 구분하여 도서관 소장 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60년 발자취를 자료 발전사와 함께 재조명 하고자 하였다. 이 지면에서는 전시회 개최를 위해 준비했던 세부진행사항들과 13개의 테마 선정 기준 및 테마설명, 전시자료 사진을 통해 “서울대학교 개교60주년기념 도서전시회”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전시개요

2-1. 전시회명 : 서울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 도서전시회

2-2. 전시일시 : 2006. 8. 8 ~ 10. 17 (월 ~ 금 : 오전 9:30 ~ 오후 5:30)

개막행사 : 2006. 8. 8 (오후 3시)

2-3. 전시장소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4층 특별전시실

2-4. 전시취지

서울대학교 개교60주년을 맞이하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13개 테마로 시대를 구분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전시회를 하고자 한다.

3. 개교60주년 기념 도서전시회 준비과정 및 세부진행사항

그동안 전시회 준비 과정과 세부진행사항을 소개 하고자한다.

3-1. 행사진행 : 중앙도서관 정보관리과

3-2. 전시에산

예산은 특별 예산을 지원 받았으나 전시기간이나 전시장소 등을 고려할 때 지원받은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였고 인테리어 회사에 맡길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3-3. 전시업체 선정

짧은 기간 안에 도서전시회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찾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 당시 도서전시회를 하고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몇 군데 업체를 만나게 되어 견적서를 받아 본 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훨씬 초과하는 견적서를 받게 되어 어렵게 추가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3-4. 전시회명 : “서울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 도서전시회”

전시회에는 특별한 어떤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에 맞춰 전시회명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나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특별한 주제보다는 서울대학교가 환갑을 맞이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전시회이므로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에 초점을 맞춰 그 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자

전시회명을 정하였다.

3-5. 전시일시 : 2006. 8. 8 - 2006. 10.17

전시 날짜를 잡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원래는 도서전시회를 6월에 오픈하여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일반인에게 장기간 전시 할 예정이었으나, 도서관 내부공사 및 도서관 중앙 통로에 걷고 싶은 거리 공사와 맞물려 몇 차례 전시 일정을 변경하여 예상보다 훨씬 늦게 전시회를 오픈하게 되었다.

3-6. 전시장소 : 중앙도서관 4층 특설전시실

우리 서울대학교도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공간 부족으로 아직 변변한 상설전시실 하나 없는 곳이다. 개교60주년을 기념하고 또 장기간 전시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4층 참고자료실의 자료들을 5층으로 이전하여 이용케 하고 그 자리에 특설 전시실을 마련하여 전시회가 끝나면 다시 자료실로 사용하기로 계획되었다. 공간은 약 150평 정도가 되어 13개 테마를 전시하기에는 그래도 가능한 공간이었다.

3-7. 전시구성

교수님, 시간강사, 관련 직원 등으로 구성된 “개교60주년 전시자료 자문위원회”에서 4차례 걸쳐 회의 결과 13개 테마로 시대를 구분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전시회를 갖기로 하였다. 선정 기준은 각 테마별 설명 시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3-8. 전시자료 목록 선정 : 13개의 테마가 결정되고 난 후 각 테마설명과 함께 전시회에 전시할 목록을 선정하였다. 목록 선정은 13개의 테마에 맞춰 작성된 예상 목록 중에서 자문위원들이 직접 선정해 주셨다.

3-9. 점검사항 : 13개의 테마별로 전시 구성을 계획 후, 전시자료 정리, 13개 테마설명, 인쇄물 제작, 설치계획, 오프닝 행사 일정 등을 점검하여 시행하였다. 전시회를 하기 전 사전 점검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시자료

13개의 테마를 시대별로 정하고, 선정위원들이 테마별 목록과 설명을 분담하여 채출하고, 채출한 자료에 해제, 국문 네임텍, 영문 네임텍 등을 정리한 후 전시업체에 넘겨주어 네임텍을 제작하

였다.

- 해제, 네임택 정리 : 테마별 목록에 대한 해제는 그 동안 우리 중앙도서관 웹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고, 해제가 없는 자료는 자문위원이나 해당 전공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이 해제를 하셨다. 네임택은 전시회에 디스플레이 할 자료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저자, 서명, 출판년도 등에 대한 서지사항을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 테마별 도서 색출 : 선정된 자료를 색출하여 테마별로 별도 보관하고, 장기간 전시회를 하므로 색출한 도서들은 소장위치를 “전시중”으로 표시를 하여 이용자들이 자료 이용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인쇄물 제작 : 포스터, 초청장, 리플렛, 현수막 등

- 초청장이나 현수막은 업체에서 제시한 도안을 수정하여 만들었으나 리플렛 같은 경우는 13개 테마별로 간단한 설명과 이미지들이 들어가서 수 차례 걸쳐 수정하여 나온 것이었고, 포스터의 경우는 개교60주년을 강조하기 위하여 13개 테마의 이미지들로 구성하여 “60”이라는 로고로 제작하였다. 아래에 “개교60주년 기념 도서전시회”에 사용한 포스터, 리플렛 그림을 소개한다.



<개교60주년기념 도서전시회 포스터>

[illegible]

- 191 -

다. 설치계획

포스터, 현수막, 테마별 도서 디스플레이, 네임택, 해제, 패널 등과 영상자료 설치, 전시장 설치, 청소작업, 테마별 도서 디스플레이 후 마감작업, 최종 리허설, 전시회 오픈 일정 등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위에 열거한 세부진행사항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설명하기에는 지면으로 부족하여 간략하게나마 이것으로 마치겠다.

4. 전시구성

전시구성은 중앙도서관 60년 발자취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도서관발전사를 비롯하여, 국보·보물, 귀중본 및 희귀본, 고문헌자료, 개인문고, 의학사자료, 일제강점기자료, 창간호잡지, 시대별 판금도서, 서울대학교출판부 출판도서, 서울대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 김승연 장서기금, 전자도서관 등 13개의 테마로 구성하였다.

4-1. 도서관 발전사

도서관 발전사는 1945년 『국립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창설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서관 발자취를 소개하고, 그에 관련된 소품들을 전시하였다. 도서관50년사를 참고로 『도서관 발전사』 테마 설명을 작성하였고 소품들은 그동안 도서관에서 전시 발간했던 전시자료책자, 전시관련 앨범, 과거의 도서원부, 도서관 설계도면, 구 분관 장서인과 소인 도장, 비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서인 등도 전시했다. 아쉬운 점은 그 동안 도서관에서 사용했던 물건들 이를테면 과거에 사용했고 지금은 이름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타이프, 카드목록을 만들기 전에 타이프로 스텐실에 기록하여 등사기 구로 밀어 카드목록이 출력 되었던 스텐실 종이, 동양서 같은 경우 한자와 일본어 등을 스텐실에 쳐서 카드목록을 만들었던 공판 등 이런 물건들을 따로 보관하는 곳과 담당 부서가 없어서 많은 소품들을 전시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 코너를 전시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도서관에서 사용하거나 발간된 자료들에 대해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한 곳에서 보관 및 관리하여 70주년 에는 더 풍성한 도서관 발전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었으면 한다.

■ 도서관 발전사 테마설명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첫째, 도서관 창설 (1945~1950)

둘째, 6·25 전란 속의 도서관 (1950~1953)

셋째, 전란 후 도서관 복구와 재건 (1953~1960)

넷째, 근대적 도서관 업무의 제도 정비 (1961~1974)

다섯째, 관악캠퍼스와 중앙도서관 (1975~1989)

여섯째, 정보화 태동 및 학술정보시스템 개발과 발전 (1990~2006)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면서 京城大學으로 귀속된 도서관을 모태로 1946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설치령”에 따라 “국립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창설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중앙도서관은 피난지인 부산에서 1951년 9월 제2학기 수업을 개강함에 따라 임시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임시도서관은 이병도 관장을 비롯하여 정광현, 이용희, 김상기, 이희승 교수 및 본관 직원 백린을 서울로 파견하여 귀중도서를 포함한 약 2만권의 도서를 반출하고 임시도서관을 개관하였다.

1954년 6월 18일 부산으로 소개(紹介)한 도서를 동송동 캠퍼스 본관으로 이관하였으며, 1957년과 1958년에 상대, 치대, 농대 도서관을 준공·개관 또는 증축하였으며, 1954년 9월 28일 미국해외개발본부 (FOA)의 자금 지원으로 설계된 서울대학교 재건계획서를 토대로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확립되어 FOA로부터 법대도서관 신축 및 사대·미대의 학술 서적 구입에 도움을 받았다. 이 사업은 1955년부터 1961년까지 진행되었다.

1961년은 도서관의 직제와 직무를 법제화한 해로써 한국전쟁의 피해를 딛고 비로소 본연의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1966년에는 부속도서관 분관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각 대학 도서관의 분산·독립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에서 탈피하여 중앙 화를 통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1975년은 현재의 관악캠퍼스로 이전함으로써, 분산되었던 각 단과대학의 도서관이 한 건물에 통합되어 본관이 본격적으로 중앙 화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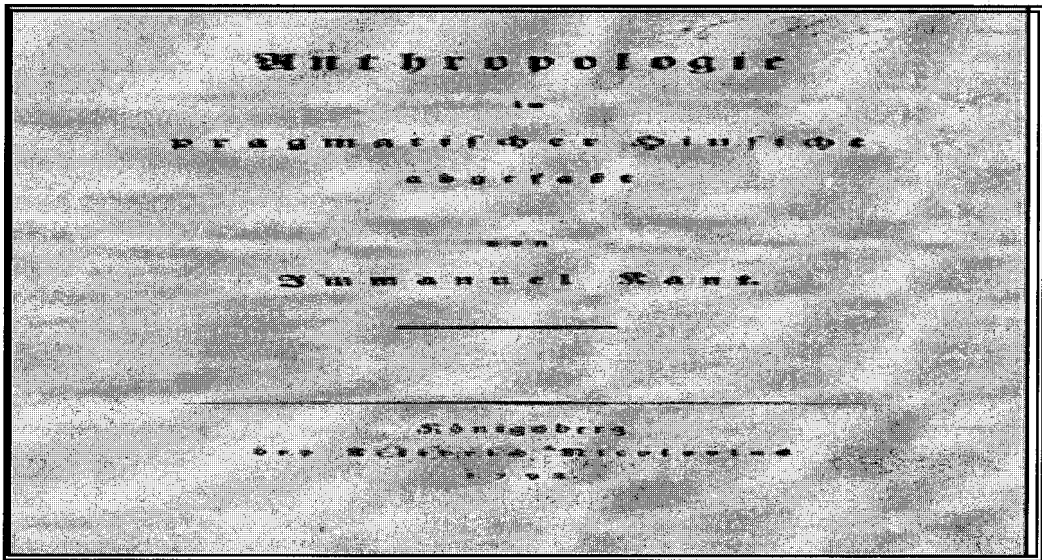
1990년은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도서관이 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학술정보센터로 가는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전환기라는 의미가 있는 해이다. 정보화사업은 1995년 학술정보시스템(SOLARS)을 시작으로 현재 SOLARS III를 운영하고 있으며 600만 건의 데이터와 원문 콘텐츠 40만 건을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4-2. 고문헌자료 (서양고전의 향기)

고문헌자료는 1910년 이전자료로 아주 귀중하고 다양한 서양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풍부한 서양 자료에는 귀중본, 희귀본, 초판본 등도 있으며 아직 연구되지 않은 자료들이 속제로 남아 있다. 이 테마에서는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서양 고문헌 중 희귀본, 초판본 등을 선정하여 전시하기로 하였다.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지속적인 자료 연구와 해제가 이루어져 많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제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서양 고전의 향기를 느끼고자 『서양고전의 향기』라 명명하여 전시하게 되었다.

■ 서양고전의 향기 테마 설명

일반적으로 1910년 이전에 출판된 도서를 고문헌자료라 한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1945년 이전에 출판된 일제강점기 자료도 이에 포함시켜 보관하고 있다. 이 시대 자료는 우리도서관이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어 동시대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고문헌 자료에는 “귀중도서”, “귀급도서” (일제강점기자료, 창간호 잡지 포함) 등 귀중한 자료들이 약 41만 여권 소장되어 있다. 이 코너에서는 고문헌자료 중 서양 근대 형성기의 사상과 문화를 만들어간 고전을 소개한다. 1581년에 프랑스의 고전학자 드니 랑땁(Denis Lambin)이 1566년에 편집한 키케로 전집을 토대로 인쇄한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전집』부터, 1680년 영국 정치사상가인 홉스의 『영국의 시민전쟁』, 1798년 칸트(1724-1804)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간된 『實用的 觀點에서 파악한 人間學』과 18세기 이전의 서양고전학자인 Grotius, Bacon, Locke, Kant, Napoleon, Goethe 등의 서양 고



<1798년, Immanuel Kant, 實用的 觀點에서 파악한 人間學>

전을 전시한다.

4-3. 일제강점기자료

우리 중앙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에서 인수한 약 30만권의 일제강점기자료를 소장하고 있고, 이 자료들은 동 시대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선정 기준은 국내 유일본을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표적인 자료들을 선정하여 전시하였다. 한정된 전시대에 많은 자료를 전시하지 못한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아직은 계획 단계에 있지만 우리 고문헌자료실 내에 상설전시장을 계획하고 있어 일본이 식민지 지배할 당시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장을 통해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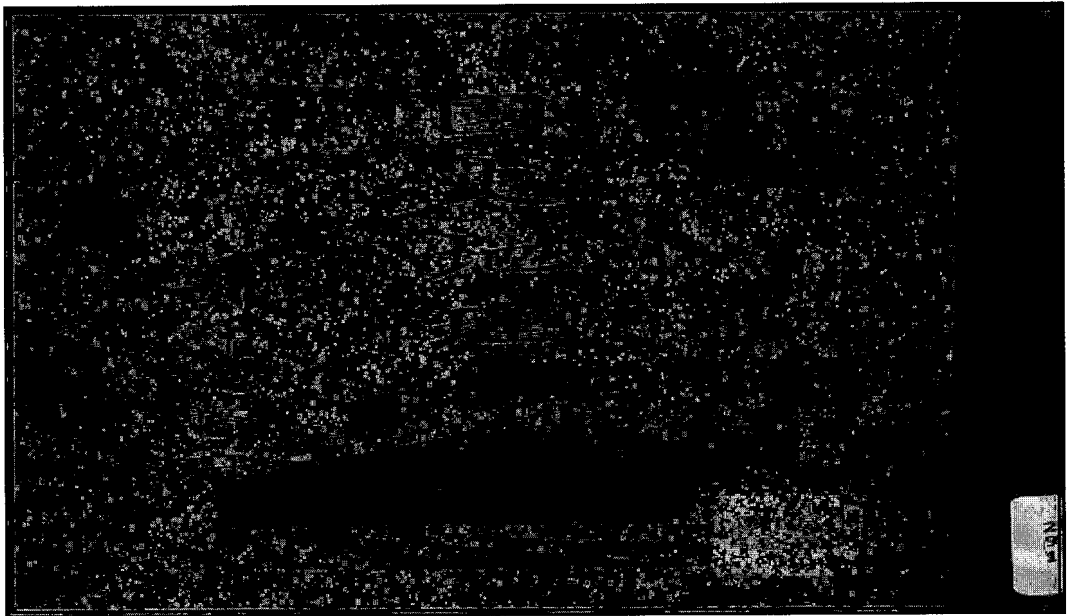
■ 일제강점기 테마설명

이번 전시자료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다양한 면모들을 보여주는 자료들로 선정되었다. 1910년 8월 조선을 강점한 후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해방될 때까지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자신만의 영구적인 식민지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작업을 행했다.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는 헌병경찰통치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식민통치의 기반을 닦아갔다. 여기서는 『朝鮮土地調査事業概覽』을 통해 토지조사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明治四十五年行政整理顛末書』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관서 및 직원에 대한 규정의 초기모습을 찾아본다. 또한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했다. 한국의 옛 관습, 고적, 문화에 대한 조사가 시행되었다. 이런 조사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조선도서해제』와 『大正八年度古蹟調査報告』 제1책이다. 그리고 1919년까지의 서울의 역사에 대한 것은 『경성부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일제의 눈은 한국 내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다. 『間島在住鮮人狀態調査書』에서는 당시 간도에 있던 한국인들의 실태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지배에 반대하는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1920년대 ‘문화통치’라는 기만적인 통치정책을 통해 한국인들을 분열시키려하였다. 『施政に關する諭告・訓示並演說』에서는 3.1운동 직후 조선총독부의 통치정책의 변화, 즉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의 전환을 입법, 사법, 행정을 망라하며 조선통치의 최고정점에 위치한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가가는다. 또한 1910년대 ‘폭력적’인 헌병경찰제도를 대신하여 ‘문화적’인 보통경찰제도를 운영한다며 경찰의 교양과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그 실상은 이전보다 확충된 경찰조직의 정비였음을 “(大正十二年)朝鮮警察の概要”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선의 현재와 장래”에 실려 있는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비롯한 글들은 이런 조선총독부의 기만적인 문화통치로 인해 민족주의계열이 분화하기 시작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약화시켜 체제내로 흡수하며

당시 재조선일본인의 고등교육기관 부재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경성제국대학을 세웠다. 『경성제국대학학보』를 통해 경성제국대학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만주국이 세워지고,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점차 전쟁이 확산되면서, 한국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인들을 이런 전시동원체제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여러 정신적인 측면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이뤄졌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민족을 말살시켜 황민화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보통학교)조선어독본 v.5”에서는 조선어로 일본의 지배정책을 선전하고, 『國史地理』·『國史地理(教師用)』에서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인식과 일본의 팽창을 정당화하는 교육이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되었다. 따라서 당시 한국어에 대한 연구는 일제의 정신적인 지배에 저항하여 한국의 정신을 유지시키려는 중요한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중의 하나가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다.



<1938년, 國史地理, 朝鮮總督府 편>

4-4. 창간호잡지

창간호 잡지는 우리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중 중요한 창간호들만 선정하였다. 전시된 창간호는 1896년 11월 국내에서 발간된 최초의 잡지 『大朝鮮獨立協會會報』부터 1970년에 창간된 『문학과 지성』에 이르기 까지 각 연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들로 선정하여 전시하였다. 아래의

이미지 첫 번째는 『大朝鮮獨立協會會報』 서문이고, 두 번째 이미지는 서울대학교 소장 창간호 잡지 중 원문 구축한 자료로 표지만 모아 놓은 이미지다.

■ 창간호잡지 테마설명

잡지는 여러 기사를 일정한 편집방침 속에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서로간의 소식을 알리고 친목을 도모하는 정도의 성격을 가진 특정단체의 회보가 주류를 차지했으나, 점차 어떤 운동이나 단체의 주지를 세상에 알리는 매체로서 의미가 커져갔고, 잡지에 글을 쓰고 또 그 글을 독자들이 공유하는 과정을 중시하여 잡지가 특정 운동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잡지가 상업화되어 생산자는 소비자, 즉 독자의 구미에 맞추기 위한 글을 양산하고 또 독자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유도하기도 하였다. 각 잡지는 때로는 시대적 요구나 독자의 관심에 따라 발전하거나 쇠퇴하며, 짧은 하나의 글이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신의 소리를 내다 강제로 폐간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굴곡을 겪는다. 이런 잡지들의 목소리를 여기서 듣는다. 어떤 잡지는 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조용조용하여 있는 듯싶었던 것도 있고,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졌던 것도 있고 때로는 채 꽃을 피우기도 전에 사그라진 경우도 있다.

한국의 잡지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한국의 언론은 초창기에는 근대문물을 수용하는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때로는 항일과 독재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며 압박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일제의 침략을 합리화하거나 서구의 문물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상업주의에 물든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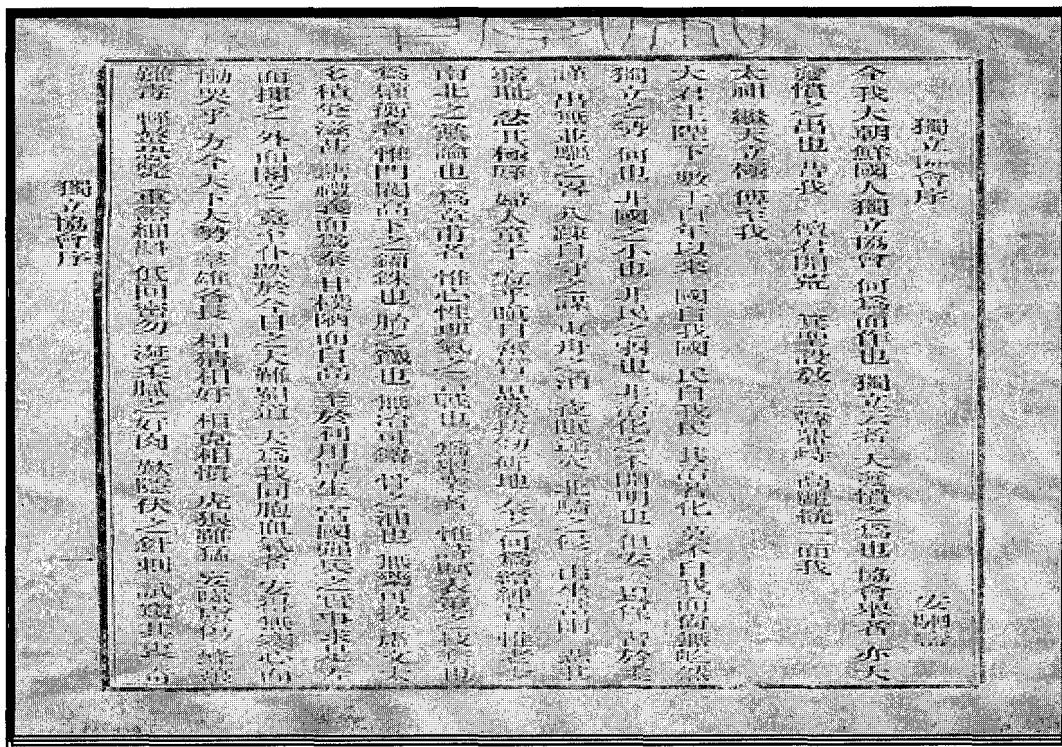
1890년대 『親睦會會報』와 『대조선독립협회회보』는 각각 대조선인일본유학생친목회와 독립협회의 회보로 서로간의 사정을 알리고 자신이 가진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漢城月報』(창간호 아님. 한국어)는 일본인 단체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가 한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조선인 계몽을 명목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선전하던 잡지이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통감정치를 실현하자,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각 애국계몽운동단체들은 잡지를 만들고 교육활동을 벌이며 계몽운동에 힘썼다. 이런 당시의 분위기와 맞물려 최남선은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실린 『소년』을 발간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언론에 대한 검열은 점차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이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일본은 한국의 잡지는 폐간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하여 한국인의 목소리는 사라지게 되었다. 불교계의 『佛敎振興會月報』와 같이 일부 종교단체에서 잠시 잡지를 간행하였지만, 일본의 종교정책 하에 점차 친일화 되어가는 종교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이 점차 심화되면서 『사회주의연구』(창간호 아님. 일본잡지)와 같은 잡지가 발간되어, 한국인 지식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920년대에 들어 '문화통치'라는 미명하에 한국의 언론을 죄던 손길이 조금 느슨해졌다. 한국인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廢墟』, 『창조』, 『백조』가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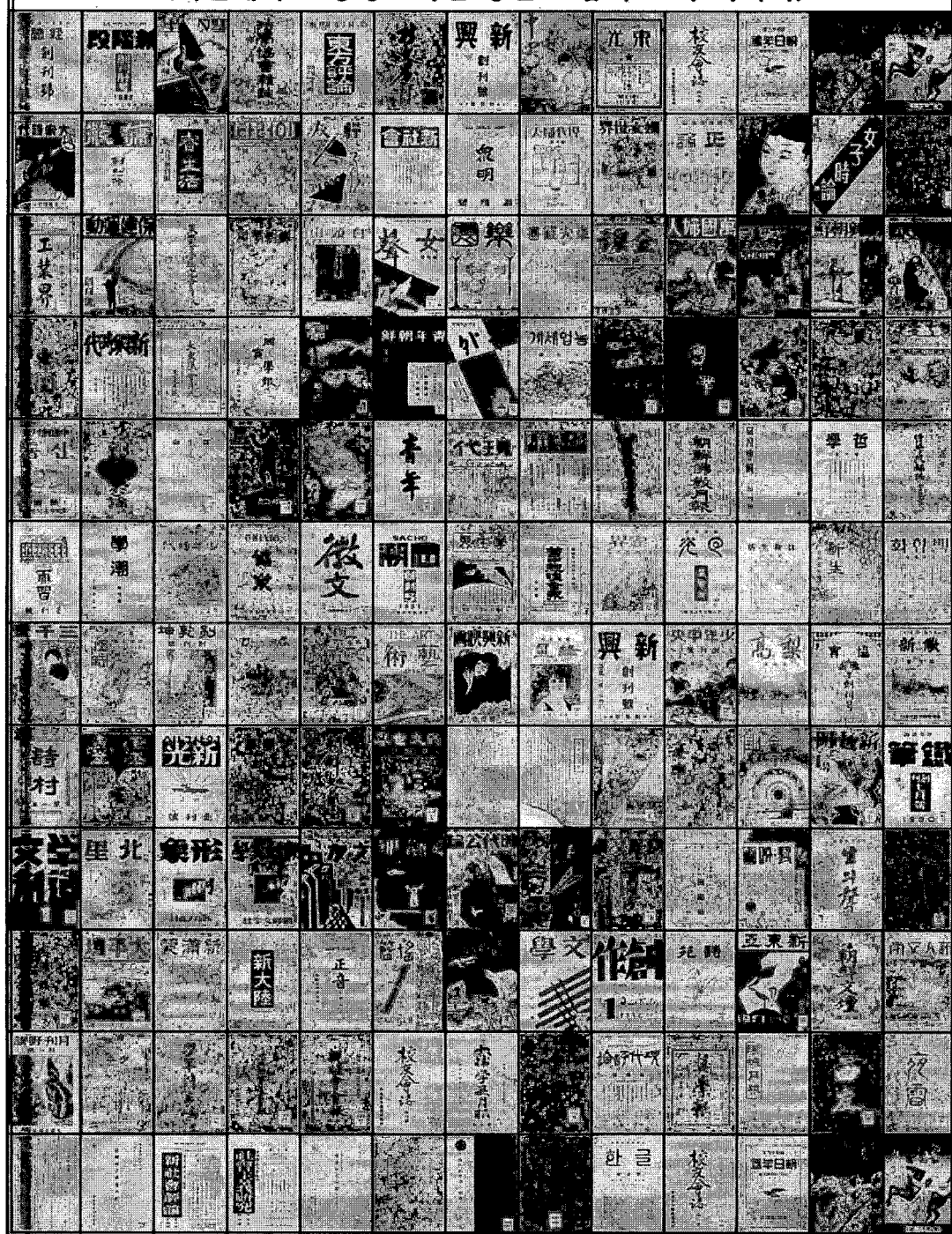
간되었으며, 특정 집단이나 운동을 대변하는 잡지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조선물산장려회에서 발간한 『산업계』, 조선소작인상조회의 『농민』, 근우회의 『근우(槿友)』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1930년을 전후해서 『삼천리』, 『신동아』, 『조광』등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월간 종합지가 나타났다. 다양한 글을 통하여 시대적 분위기를 잘 보이고 있다. 이런 월간 잡지 중 상당수는 일제가 전시통제를 강화하면서 점차 폐간되거나 일부는 일제의 통치를 선전하는 친일잡지로 전락하고 만다. 이외에도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은 준 기관지적 성격을 지닌 『신계단』같은 월간 잡지나 기관지 『조선문학』(창간호 아님)과 같은 문예지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신흥영화(新興映畵)』처럼 영화산업의 발달과 관심이 증대하여 영화잡지도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조선문단』(창간호 아님)이 발행되기도 하였다.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다양한 잡지가 등장했다. 특히 1953년 창간된 『사상계(思想界)』는 이후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양심적인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1966년 창간된 『창작과비평』 1970년에 창간된 『문학과지성』은 문학의 현실참여를 둘러싸고 각각 ‘실천적 이론’과 ‘이론적 실천’을 대변하며 한국의 사상계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였다. 또한 진보적인 글쓰기를 표방하며 노동자, 농민으로까지 문학의 지평을 확대한 『실천문학(實踐文學)』도 중요한 문학운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896년, 大朝鮮獨立協會會報>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창간호 잡지 표지 이미지>



<서울대학교 소장 창간호 잡지 표지 이미지>

4-5. 시대별 판금도서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고 그 시대를 후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매개체는 책이라고 생각 된다. 이 테마가 선정되어 자료 조사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1960년 이전에 발간된 자료들은 대상 자료가 풍부했지만, 60년대부터 80년 후반까지의 자료 선정은 쉽지 않았다. 암울했던 침략시기, 군사독재정권, 쿠데타 등 격변의 세월을 보낸 즈음에는 다수의 판금도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시자료 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시대의 자료들을 한 테마로 결정하여 『시대별 판금도서』코너로 정하였다. 이 자료들은 웹 사이트에서 판금도서를 전부 찾아 목록을 만들어 자문위원회에서 판금도서를 연대별로 선정하여 전시하게 되었다. 선정된 판금도서를 조사하면서 우리 도서관에서는 대부분이 판금된 시기에 출판된 도서들을 소장하고 있지 않아, 그 당시 출판사에 의뢰하여 대여 전시하고자 하였으나 출판사 조차도 판금되었던 최초의 책들이 남아 있지 않았다. 그나마 출판사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 책들이었다. 이 조사를 하면서 그 당시 출판 검열이 얼마나 심했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차선택으로 출판 금지된 당시 책이 없는 것은 그 후에 나온 책으로 대신하여 전시할 수 밖에 없었고 일부는 교수님이 소장하고 계신 책들을 기증받아 전시하게 되었다.

이 전시 코너에서는 1969년 음란성을 이유로 법정에 선 국내 최초의 문학 작품인 염재만의 『반노』를 비롯하여,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판된 리영희의 첫 번째 평론집으로 군사정권의 관제교육이 심어놓은 왜곡된 관념들의 허구성을 충격적으로 폭로했고 1974년의 초판 이래 1978년까지 9쇄가 나온 뒤 뒤늦게 당국으로부터 불온서적으로 지목되어 판매가 금지되어 80년대 학생운동의 입문서 역할을 한 『전환시대의 논리』, 1981년 출판된 무림세계의 정사간(正邪間) 대립을 유물변증법과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설명한 한 페이지 남짓한 대목 때문에 작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2년간 감옥살이를 한 도서 『무림파천왕』, 1982년 한국의 저항문학을 대표해 온 김지하 시인의 자선 시집 『타는 목마름으로』, 표제작 『타는 목마름으로』의 “민주주의여 만세”라는 구절이 80년대 학생운동 현장에서 노래로 불리울 때 그 호소력은 놀라울 만큼 컸다. 1996년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포르노에 가깝게 성행위를 묘사한 소설, 음란문서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책은 판금조치 되고 작가는 징역 10월에 처해졌다. 이 코너는 13개 테마 중 색다른 전시자료로서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금서의 정치학과 판금도서 테마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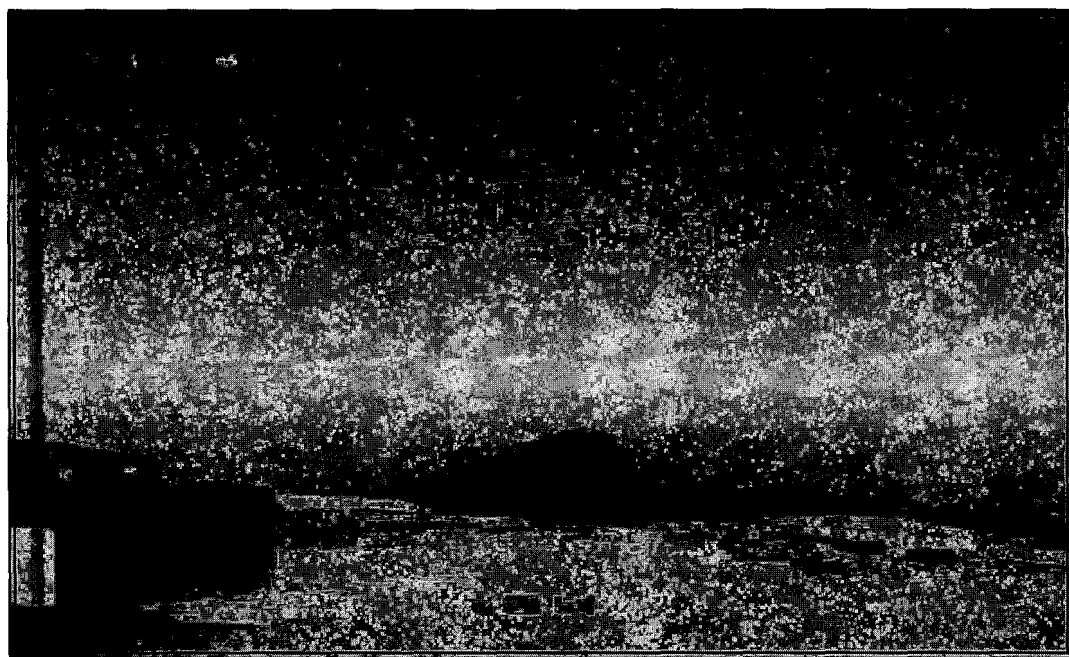
기존 질서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책을 그 사회는 금서로 규정한다. 금서는 금서로 규정한 그 사회의 질서를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 바깥의 시각을 통해 우리는 질서 안에 있을 때는 보기 어려웠던 그 질서의 윤곽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치안 유지와 신앙상의 문제, 정치, 사상, 풍속 등의 여러 이유에서 정부나 교회의 명령으로 서책

의 간행 발매 소장 열람을 금지하는 것, 또 이에 의해서 금지된 서책.” 금서에 대한 사전적 설명은 이와 같지만, 현대의 금서는 주로 정치적인 것, 성적인 것과 관련하여 규정된다. 정치적 억압과 성적 억압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긴밀한 내적 연관을 맺고서 그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판금도서, 즉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도서는 금서의 현재적 생산이라는 지평을 보여준다. 새로운 금서의 생산과 기왕의 금서의 재생산이 그 지평을 구성한다. 이는 출판 행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 질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출판을 했기 때문에 판매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판금도서의 존재는 그 사회의 억압을 입증함과 동시에 그 억압에 대한 저항을 입증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판금도서가 가장 많이 생산된 시기는 1970~80년대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시기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 그 판금도서 중 문학 서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 반성이라는 문학의 본질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1984년, 님 웨일즈 저, 아리랑>

4-6. 서울대학교 출판부 출판도서

서울대학교 출판부는 학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 교수님들의 저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출판부는 이 전시를 위해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도서 중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출판부 추천도서 등을 선정하여 약 50여 책을 기증하였다. 이 코너는 순환 전시하기로 하여 전시기간 동안 1회 더 순환 전시하였다.

■ 서울대학교 출판부 출판도서 테마설명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된 도서 중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 저명한 기관에서 추천받은 도서를 선정하였으며, 그 외 자료는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각 분야별 도서를 추천한 것이다.

추천된 도서들은 1984년부터 지금까지 발간된 자료 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에 재직 중이신 금장태 교수님의 『한국유학의 심설』,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 및 총장이며, 보건사회부 환경처 장관,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지내신 권이혁 교수의 저서로 본인이 경험한 이론과 정책, 현황 등에 대해 저술한 『인구·보건·환경』과 서울대학교 교수민주화운동50년사 발간위원회에서 저술한 『서울대학교 교수민주화운동 50년사』는 서울대학교 개교60주년에 즈음하여 의미 있는 전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4-7. 서울대 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

서울대학교 권장도서는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이해의 증진 및 현재적 적실성의 문제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하고, 100권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공 교수님들이 해설과 독서지침을 집필하여 2005년에 해제집으로 발간하여 서울대학교 전 교직원에게 총장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도 하였고, 이 전시회 기간동안에는 특별가로 해제집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서울대 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에 대한 선정 취지는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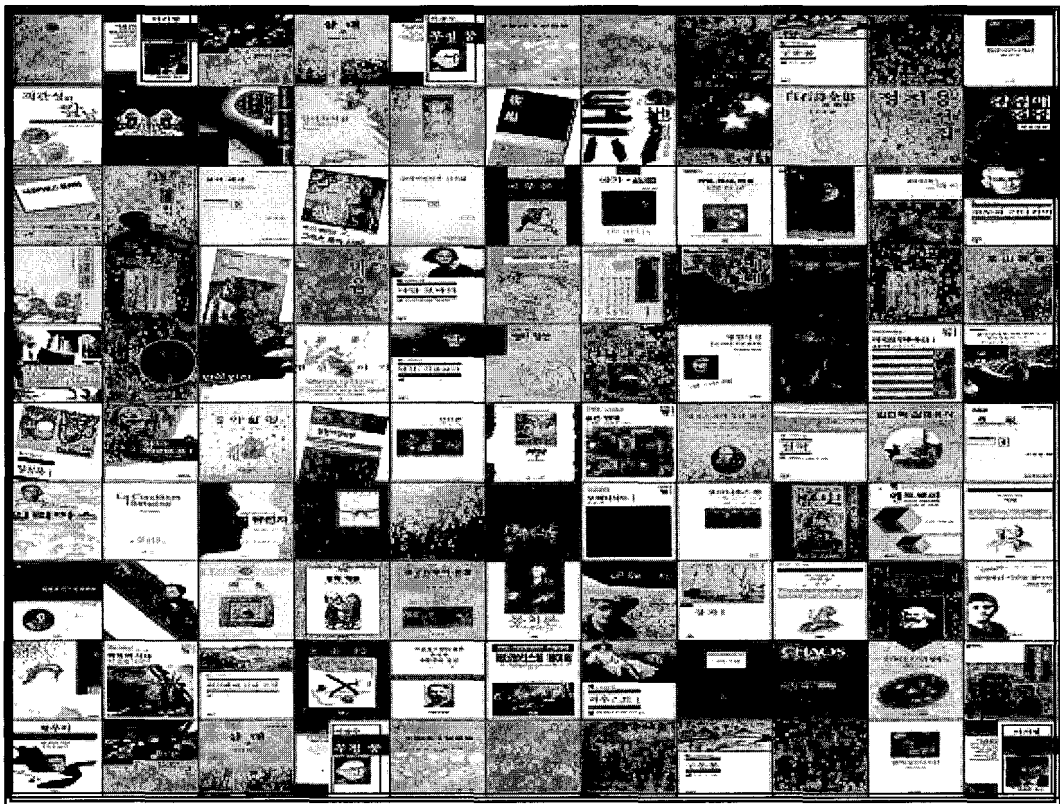
■ 서울대 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 선정 취지

학생들이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든든한 잠재역량을 키워주기 위하여 대학교육은 개별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종합적 판단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서울대학교는 인문·사회·자연과학의 기초학문 분야를 바탕으로 하는 기초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대 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을 기획하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지식의 원천이 되는 동서양

고전을 읽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

고전은 모름지기 인류의 지혜가 집약된 보고라 할 수 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인이 되려면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문화적 성취를 이루었는지 그 폭과 깊이를 아울러 개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전을 읽음으로써 그런 능력은 연마되는 것이다.

권장도서 100권이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한 문화적 성취의 내용을 다 망라하여 집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전의 세계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에서 문제를 찾아 씨름하면서 관련된 논의를 참조하고 알아보기 위해 계속 읽어야 할 책을 자신이 스스로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그 길의 초입까지 안내를 받은 뒤에는 독자들 스스로 지적 탐험의 주체가 되어 길을 선택할 줄 알게 되는 것이 100권의 선정 취지에 진정 부합하는 것이다.



<서울대 학생을 위한 권장도서 100선 표지>

4-8. 국보·보물

우리 중앙도서관에 개인이 기증한 자료 중 1973년에 국보 제150호로 지정된 『송조표전총류 (宋朝表牋總類)』, 1984년 보물 761호로 지정된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등의 국보와 보물을 전시하였다. 전시된 국보와 보물은 2주간 매일 오전 9시30분에 전시하여 오후 5시30분에 담당사서 2명이 고문헌자료실 내 귀중본실로 이동하여 보관하였고 2주 후에는 파손될 우려가 있어 이미지와 해제만을 전시하였다.

■ 국보·보물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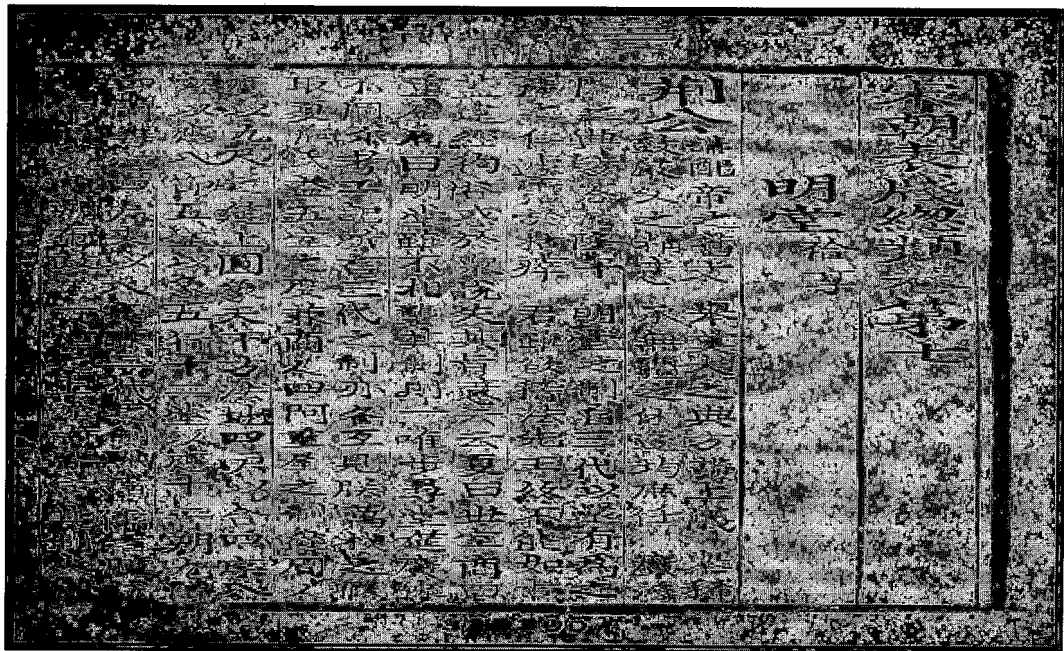
송조표전총류 宋朝表牋總類 (1책), 국보 150호

저자미상, 태종연간(1400-1418), 1책, 활자본(계미자)

Songjo pyojeon chongnyu

A General Collection of Memorials of the Song/Sung Dynasty

1 book, The National Treasures, No.150



<송조표전총류 宋朝表牋總類 (1책), 국보 150호>

조선 초기에 중국 송나라의 상소문(上疏文) 중에서 뛰어난 것을 뽑아 계미자(癸未字)로 간행한 책. 표전(表牋)이란 신하가 군주에게 올리는 글을 말하는데, 천자에게 올리는 글을 표(表), 황후나 태자에게 올리는 글을 전(牋)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십칠사찬고금통요(十七史纂古今通要)』와 같이 1403년(태종 3) 조선 최초의 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로 인쇄한 것이다. 조선초기의 주자술(鑄字術)과 조판술(造版術)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1973년 7월 10일에 국보 제150호로 지정되었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1권 11책), 보물 765호

계환(戒環) 풀이, 신미(信眉) 언해 1462년(세조 8), 11권11책, 목판본

Dae Bul jeong yeorae mil in su jeung ryo eui je bosal manhaeng su neung-eomgyeong
Surangamasutra

11 books, The National Treasures, No.765

송나라 계환(戒環)이 풀이를 붙인 『수능엄경요해(首楞嚴經要解)』에 대해 세조(世祖)가 한글로 구결을 달고 한계희(韓繼禧), 김수온(金守溫) 등이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의 도움을 받아 번역하여 1462년(세조 8)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 교서관에서 간행한 을해자본 『능엄경』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간경도감에서 목판본으로 다시 간행하였는데, 이 책은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최초의 불경 언해서로 이후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불경 언해의 전범 역할을 하였다. 1984년 5월 30일 보물 제765호로 지정되었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2권 2책), 보물 761호

계환(戒環) 풀이, 신미(信眉) 언해 1461년(세조 7), 2권2책, 활자본

Dae Bul jeong yeorae mil in ㄴ jeung ryo eui je bosal manhaeng su neung-eomgyeong
Surangamasutra

2 books, The National Treasures, No.761

송나라 계환(戒環)이 풀이를 붙인 『수능엄경요해(首楞嚴經要解)』에 대해 세조(世祖)가 한글로 구결을 달고 한계희(韓繼禧), 김수온(金守溫) 등이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의 도움을 받아 번역하여 1461년(세조 7) 교서관에서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책. 『능엄경』은 불교의 근본 경전 중의 하나인데,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 ‘수능엄경’이라고도 부른다. 발문에 따르면 1449년(세종 31) 세종의 명령으로 수양대군이 번역에 착수하였으나 끝내지 못하고 미루어지다가 1461년(세조 7) 10월 교서관에서 을해자로 400부를 간행하였다고 한다. 조선전기의 언어·출판·불교 등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1984년 5월 30일 보물 제761호로 지정되었다.

4-9. 귀중본 · 희귀본

우리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는 귀중본을 별도로 비치하고 있다. 이 테마에서는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귀중본, 희귀본, 유일본, 초판본 등을 선정하여 전시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들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서 구입했던 귀중본도 있으며, 독일에서 전쟁 보상금으로 준 자료들도 있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귀중본 중 그 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져 왔던 『인피도서』의 조직검사 및 DNA 검사 결과를 전시함으로써 언론을 포함하여 관람객들의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다. 『인피도서』에 관련해서는 4-10 에서 별도로 그 결과 내용을 알아보겠다.

■ 귀중본 · 희귀본 테마 설명

귀중도서는 17세기 이전에 인쇄 또는 필사된 도서와 그 외 귀중도서 지정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도서로 서양서 129종, 동양서 46종 (총 175종)이 지정되어 귀중본실에 보존되어 있다. 이 코너에서는 귀중도서로 지정된 도서 중 서양서 14종, 동양서 8종의 귀중도서 및 희귀도서를 전시한다. 1526년 동로마황제 유스티아누스가 편찬을 명한 『법학제요』(法學提要), 1615년 약 400년 전에 쓰여 졌지만 양가죽 표지와 공기 차단 잠김쇠 덕분에 보존 상태가 좋아 서지학(書誌學) 차원에서 귀중한 책으로 독일 아우스부르크(Ausburg) 대학 도서관에서 경성제국대학에 기증한 것으로 현재 독일에도 없는 『예수회 그리스도인의 중국 탐험』, 1651년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생애를 기술하고 그



<1651년,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회화론>

림 365점을 간단히 해제하고 복사한 도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회화론』, 1672년 중국에 볼모로 있던 소현 세자(昭顯 世子)에게 天文歷書 및 西學書, 地球儀 등을 주어 조선이 서구문명과 만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 『東方과 中國王國에서의 正統信仰의 發展에 關한 報告書』, 독일에서 출판된 1700년 이전 도서 중 장정을 사람의 가죽을 사용하여 책을 제본했다는 인피(人皮)로 추정되는 도서, 1884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 『漢城旬報』, 『漢城旬報再刊行趣意書』 등 다양한 도서를 전시한다.

4-10. 인피로 추정되는 도서

우리 중앙도서관 귀중본실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중 그 동안 구전(口傳)으로만 전해져 왔던 귀중본에 인피도서가 있다는 말씀만 선배님들한테 전해 들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피도서라고 전해져 왔던 자료들을 추출하여 조직검사 및 DNA 검사를 시행하기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인피도서로 추정되어 왔던 자료 10종을 선별하여 1차 조직검사와, 2차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종 중 1종에서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발견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왔기 때문에 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결론을 『인피로 추정되는 귀중도서』라 하여 전시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인피 추정도서라 전시회가 열리기도 전에 각 언론사에서 취재 및 촬영을 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

■ 인피로 추정되는 귀중도서 테마설명

우리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 중 그 동안 구전(口傳)으로만 전해져 왔던 인피(人皮) 장정 도서를 처음으로 공개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유럽에서 출판된 1700년 이전 자료 중 사람의 가죽을 사용하여 책을 제본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서이다. 지금은 혐오감과 충격을 불러일으키지만 17세기, 18세기에는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개교60주년기념 도서전시회』를 계기로 인피(人皮)로 추정되는 도서 6종과 소가죽을 비롯한 동물가죽으로 제본된 도서 4종을 비교하기 위하여 조직 검사 및 DNA 검사를 시행하였다. 먼저 현미경 조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피 추정 6종<샘플 1~6>은 소, 양, 말 등 도서 장정에 주로 사용된 동물가죽<샘플 7~9>과는 확연히 다르며, 사람의 피부조직<현생인피>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피 여부를 보다 확실하기 위해 DNA 분석도 시행하였다. 가죽이나 인피에서 DNA를 추출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1992년 인피 추정 도서 장정으로부터 DNA 분석을 시도한 바 있으나,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한 바 있다. 우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10종에 대해 분석을 시도한 결과, 9종에서 DNA 추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박테리

아의 DNA로 밝혀졌고, 인피로 추정되는 도서 1종(청구기호 K130 49 c.2)에서만 인간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확인되었다<샘플 1> 참조.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DNA 분석 결과만으로는 인피로 확정짓기는 힘들다. 그러나 조직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인피(人皮)로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人皮 추정 고문서 표지에 대한 DNA 분석 결과

이준정(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김종일(KAIST 인문사회학부)

한영희(KAIST바이오시스템공학과 연구원)

<실험 결과 요약>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고문서 표지에서 추출한 표본시료 10점에서 DNA를 추출해 본 결과, 9번 시료를 제외한 9점의 시료에서 DNA 추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DNA 분석 결과, 대부분이 박테리아 DNA로 추정되었다. 박테리아 DNA 가운데 고문서 표지 소재의 DNA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최대한 양의 DNA를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번 시료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일부분이 증폭되었다. 또한 sequencing을 통해 HVI에 대한 결과물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시료 자체가 오염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 후대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오염된 DNA가 추출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DNA 분석 결과만으로는 본 서적의 표지가 인피로 제작한 것이라고 확정짓기는 힘들다.

<표본시료 내역>

샘플 번호	청구기호	추정 소재	비고
1	K130 49 c.2	인피	
2	K110 39	인피	
3	K130 50	인피	
4	K100 53	인피	
5	K130 51	인피	
6	K100 31	인피	
7	K110 37	소가죽	
8	H230 78	동물가죽	
9	H290 4	동물가죽	
10	H210 23	동물가죽	

<DNA extraction>

- Animal tissue, genomic DNA prep kit 사용

샘플	질량 (mg)	DNA 양 (ng/ μ l)	비고
1	18	646.5	
2	8	48.7	
3	5	242.4	
4	16	1576.8	
5	6	259.7	
6	50	154.0	
7	13	188.2	샘플 표면에 곰팡이 있음
8	12	1.3	
9	29	-	샘플이 갈색으로 변색되었는데 DNA 추출한 후에 갈색을 띠어서 DNA 정량에 문제 있음
10	16	20.1	

<DNA사진>

1 4 5 7 9



<PCR re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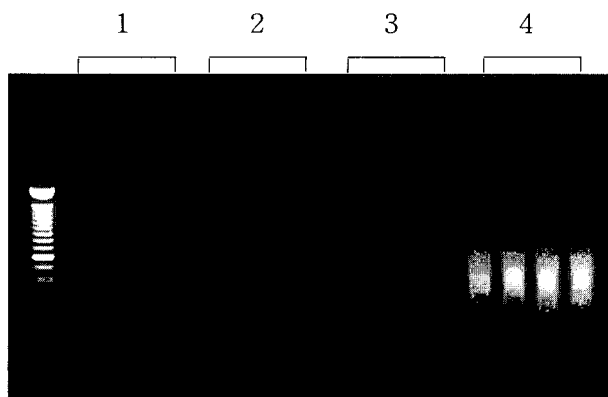
- primer : mitochondrial DNA - ① HV I (185bp)

② HV II (260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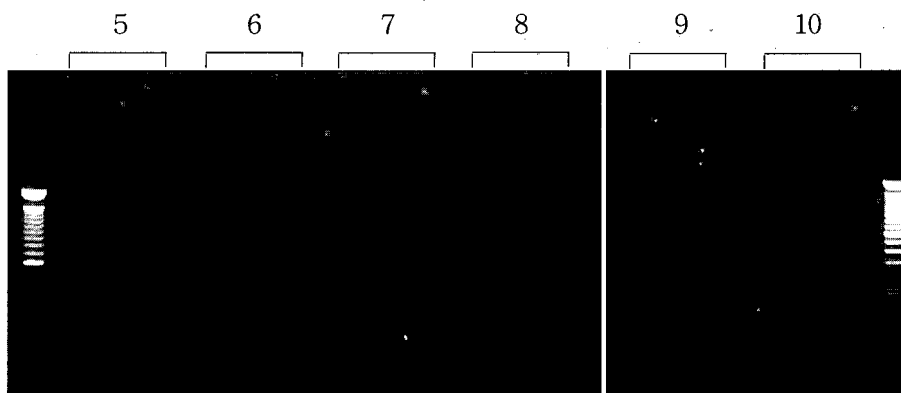
genomic DNA - ③ β -actin (250bp)

④ x-chromosome (219bp)

<PCR 결과>



⇐ 1번 샘플에서 HVI에 대한
PCR product가 있음.



<Sequencing 결과>

CLUSTAL X (1.81) MULTIPLE SEQUENCE ALIGNMENT

```

*****
HVI-288bp AAAGCTAAGATTCTAATTAACTATTCTCTGTTCTTTTCATGGGGAAGCAGATTGTTGGGTACCAACCAAGTATTGACTCAG 80
HVI#1_F16030_ -----TCGAC 5
HVI#1_R16214_ -----TCATGGGGAAGCAGATTGTTGGGTACCAACCAAGTATTGACTCAG 43
ruler 1.....10.....20.....30.....40.....50.....60.....70.....80

*****
HVI-288bp CCATCAACAACCGGTATGTATTCTGTACATTACTGCGAGCCACCATGAATATTGTACGGTACCATAAATACCTTGACCACC 160
HVI#1_F16030_ CCATCAACAACCGGTATGTATTCTGTACATTACTGCGAGCCACCATGAATATTGTACGGTACCATAAATACCTTGACCACC 85
HVI#1_R16214_ CCATCAACAACCGGTATGTATTCTGTACATTACTGCGAGCCACCATGAATATTGTACGGTACCATAAATACCTTGACCACC 123
ruler .....90.....100.....110.....120.....130.....140.....150.....160

*****
HVI-288bp TGTAGTACATATAAAACCCCAATCCACATCAAAAACCCCTCCCATGCTTACCAAGCAAGTACAGCAATCAACCCCAACCAT 240
HVI#1_F16030_ TGTAGTACATATAAAACCCCAATCCACATCAAAAACCCCTCCCATGCTTACCAAGCAGGTACAGCA----- 149
HVI#1_R16214_ TGTAGTACATATAAAACCCCAATCCACATCA----- 153
ruler .....170.....180.....190.....200.....210.....220.....230.....240

HVI-288bp CACACAT 247
HVI#1_F16030_ ----- 149
HVI#1_R16214_ ----- 153
ruler .....

```

⇒ Reference sequence와 비교한 결과, 샘플 #1은 human mitochondrial DNA hypervariable region I (16029-16215)과 일치하였고 16185C가 T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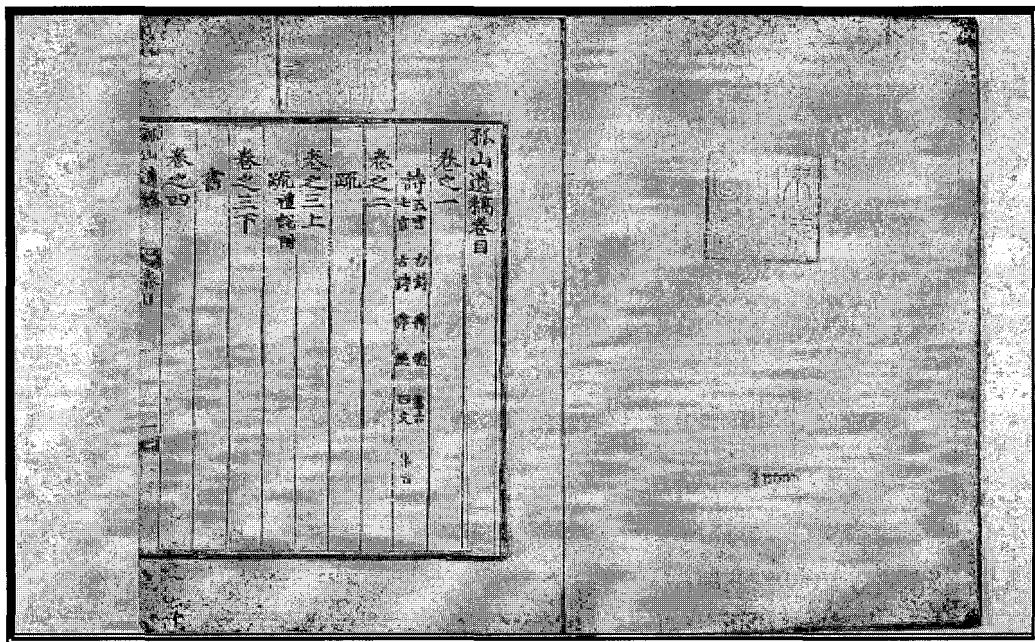
4-11. 개인문고

우리 도서관에는 교수님들이 기증한 자료 약 6만 여 책을 소장하고 있고, 기증한 자료는 기증자의 “호”를 붙여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국보·보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다. 이번 전시회에

서는 교수님들이 기증한 자료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자료들로 선정하여 전시하였다.

■ 개인문고 테마 설명

개인문고는 후학을 위하여 기증한 개인장서로, 기증자의 호(號)를 문고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에 당시 문리과 대학장이던 故 方鍾鉉(號 一叢)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국어국문학 자료 5,200책을 기증받아 일사 문고도서로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가람(이병기 교수), 상백(이상백 교수), 설송(정광현 교수), 심약(이승녕 교수), 일석(이희승 교수), 학현(김계숙 교수), 서농(이회영 교수), 남창(손진태 교수), 백사(전광용 교수), 小澤(小澤有作 東京都立大學 名譽教授) 문고 등 11개 문고는 중앙도서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국산(김택수 동문), 목촌(김도창 교수)문고는 법학분관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일사문고의 지정은 이후 많은 교수들의 도서 기증에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문고 중 일사(방종현 4,509책), 가람(이병기 3,477책)문고는 국문학연구에 있어 쌍벽을 이루는 귀중한 자료가 다수이며, 그 중 7종 11책은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되었고, 상백(이상백 6,206책)문고는 사회학 및 한국학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한적 중에는 국내 유일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고산 윤선도의 시문집인 『고산유고』(孤山遺稿), 18세기 전반의 학자 이중환(1690-1753)이 지은 조선 전국에 관한 인문 지리서 『택리



<간기미상, 고산 윤선도 시문집 孤山遺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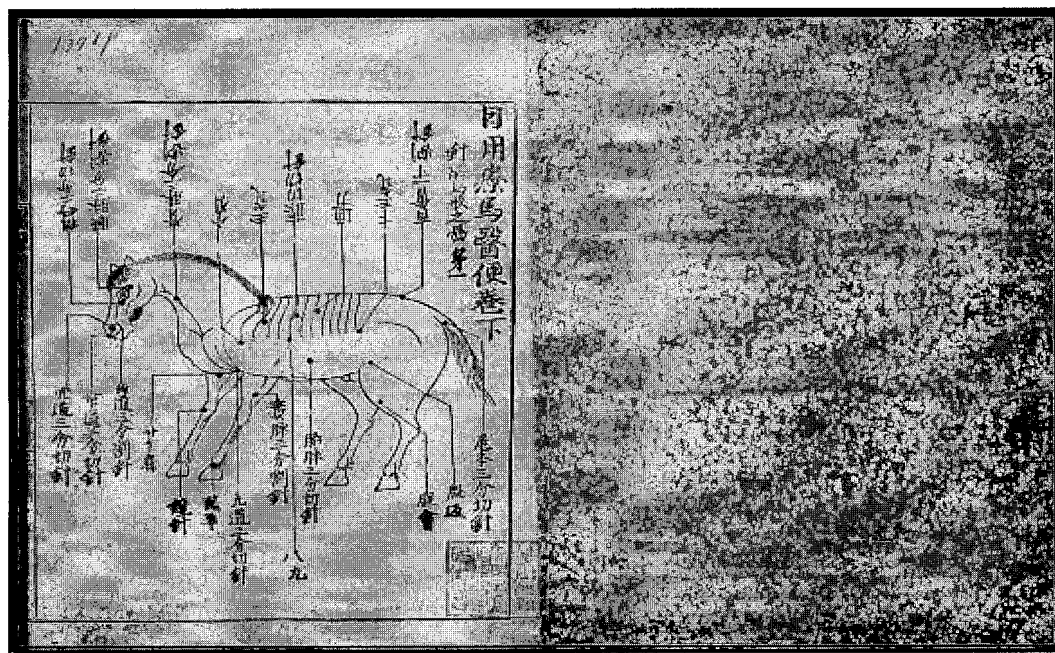
지』(擇里誌), 조선후기 주요 가문의 계보를 정리한 『잠영보』(簪纓譜), 1476년 (성종 7)의 文科 합격자 명단인 『별시방』(別試榜), 군사전문가에게 중요한 참고서적인 『병학지남』(兵學指南) 등이 포함되어 있다.

4-12. 의학사자료

의학사 자료도 개교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근대의학 수용과 정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코너를 장식했다. 의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적본 귀중도서와 서울대 병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창간호 잡지 50책을 의학 도서관에서 대여하여 전시하기로 하였다. 의학사자료는 크게 세 주제로 나누어 각 권에 대한 해제 및 테마 설명을 붙여 전시하였다. 첫 번째 『근대의학 수용의 한 경로-일본의 重譯本 西洋醫學書』, 두 번째 『식민지 근대의학의 양상-의무기록과 학술지』, 세 번째 『해방 이후 의학의 문화·발전-의학전문학술지 창간호』로 구분하여 각 주제에서 대표할 만한 자료들을 선별하여 전시하였다.

■ 의학사자료 (한국의 근대의학 수용과 정착)

한국인의 서양 근대의학 수용의 시원은 적어도 19세기 초 정약용의 우두법 도입까지 올라가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개항 이후 일본에 조사시찰단을 보낸 이래 본격화했으며 그 경로는 다양했다. 최초의 근대적 정부병원인 제중원의 설립(1885)은 영미권 선교의료와의 접촉의 산물이었지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양의학을 수용한 일본의 영향력도 컸으며 독일과 러시아 역시 또 다른 통로였다. 에도시대 이래 네덜란드를 통해 서양의학을 수용한 일본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중층적인 수용양상을 보여준다. 개항 전후 서구 의학서적을 재번역한 重譯本 의학서들은 이를 보여준다. 일본 명치정부는 선진적이면서 천황제에 적합한 독일의학을 선택해 이를 발전시켰고 이러한 선진의학으로 한국인들의 선망을 얻어 지배의 단서를 삼으려 했다. 조선정부의 독자적인 의료근대화의 노력이 좌절되고 그 결실들이 왜곡된 형태로 식민지 국가의료의 기반으로 흡수된 뒤 식민지기는 독일계 일본의학이 주도했다. 경성제대부속병원의 의무기록은 식민지 중앙의료기관 및 이용자들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학술지에 실린 한국인들의 연구성과는 차별적 상황 속에서도 발휘된 한국인들의 의학에 대한 열정과 성과를 보여준다. 해방 후 자발적으로 학회 조직과 학술지 발간을 주도했던 한국인들은 미군정과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 및 교육재건프로그램을 통해 선진적인 미국의학을 단기간에 흡수했다. 이 학술지 창간호들은 소박하지만 이후 한국 현대의학의 급속한 발전과 전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처럼 100여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서양근대 의학을 정착시키는 과정은 매우 복잡적이고 중층적이었으며 그만큼 다양한 경험과 전통이 생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1849년, 日用療馬醫便>

4-13. 김승연 장서기금

개교60주년 기념 전시회에서는 13개 테마 중 김승연 장서기금 코너를 마련하여 전시하기로 하였다. 전시회 오픈 행사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외 간부들이 참석하여 총장님, 내.외빈들과 함께 전시회 개막 행사를 빛내주었다. 이 코너에는 장서기금 출연 구입자료 일부, 기념식수 사진, 장서기금 출연기념 동판, 장서기금 장서인 통을 전시하였다.

■ 김승연 장서기금 테마설명

김승연 장서기금은 한국화약그룹 김승연 회장이 대학의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도서관 장서확충의 뜻을 가지고 1990년 8월 21일에 250억원의 기금 출연을 결정, 4년(1990~1993)에 걸쳐 이뤄진 것이다.

우리 도서관은 1991년부터 총250억에 대한 이윤과 2003년~2005년 3회에 걸쳐 5억의 별도출연금으로 단행본(약40억), 학술지(약270억), 전자자료(약20억), 비도서 자료(약3억)을 2005년까지 총 333억의 구입비가 집행되었다. 이에 도서관은 단행본 및 학술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서확충이 가능하게 되었고, 특히 1,000종 이상의 학술지를 계속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

로써 연구의 계속성을 도모하였으며, 이는 학술지 전체 예산 중 40~50%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승연 장서기금은 도서관의 장서확충 및 양질의 장서 구성의 안정적인 인프라로써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의 기반 조성을 도모하였고 우리 대학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도서관 발전에 귀감이 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담당할 것이다.

4-13.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콘텐츠 코너에는 도서관 소장목록 150만건과 서울대학교학위논문 원문 8만3천건 등 원문 콘텐츠 40만건(이미지 1,000만면, 동영상 1,800시간)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상용 데이터베이스 등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대형 PDP와 컴퓨터를 통해 콘텐츠를 소개하였다.

- 클릭! 손끝에서 만나는 전자도서관
- 디지털콘텐츠 소개
- 전문콘텐츠 I - 학위논문, 대학간행물, 디지털곤충표본관
- 전문콘텐츠 II - 학술행사, MEDCON
- 전문콘텐츠 III - 고문헌, 서울대학교 대학사료
- 지식과 정보의 관문, 데이터베이스
- 추천 데이터베이스
- 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 살펴보기

이 전자도서관 코너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컴퓨터를 통해 검색을 하기도 하고, 전문 콘텐츠별로 이미지를 감상하기도 하였다.

5. 맺음말

『서울대학교 개교60주년 기념 도서전시회』 행사를 마친지도 벌써 4개월 남짓하다. 전시회는 8월에 오픈을 했지만 자료선정 등을 포함한 준비 작업은 3월부터 시작되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례 회의를 거쳐 60주년 준비위원회에 논의되어 이루어졌다. 이번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였고,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하면서 한번도 해보지 못했을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지면을 통해서 그동안 기획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했던 이성렬 선생님, 고문헌자료실에서 이용자 열람을 하면서 일을 같이하던 송미경 선생님, 전시회 준비 중에 정보관리과 과내이동이 있어 정신없이 참여하게 된 박정주 선생님, 전시도서 해제를 맡아 주신 선생님들과 이 전시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쁜 와중에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호흡을 같이 했던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곁에서 지켜보던 동료들의 격려로 힘을 얻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 60주년 도서전시회를 다녀간 관람자는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방학을 맞아 찾아온 초.중.고 학생들 뿐 아니라 멀리 부산, 여수, 광양 등에서도 방문했으며 관람객들의 수가 약 10,000 여명에 이른다. 관람자들이 방명록에 기록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면 『서울대학교 역사, 도서관의 역사를 알고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인피 추정 도서가 인상 깊었습니다.』, 『도서관의 긴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이런 전시회를 볼 수 있다니 아주 새롭고 인피 도서 인상 깊네요.』, 『조용한 가운데 여러 전시물들을 보며 마음이 참 고요해진 것 같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책 많이 읽고 싶어지네요.』, 『도서관이 더욱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 서울대학교가 자랑스럽다는 내용의 글 들을 보면서 전시회를 통해 관람자들이 얻어간 것은 무엇이며, 향후 도서전시회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남겨진 자료들과 소중한 경험들은 앞으로 남은 사회생활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동료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족하지만 이 글을 쓴다.